광주·전남 기업들 설 휴무 3~5일

기아차 5, 금호타이어 4, 삼성전자 3일

中企 평균 3.3일…상여금 지급은 줄어

올해 설에 광주·전남지역 대기업은 최대 닷새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평균 휴무일은 3.3일로 조사됐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설 연휴를 갖는다. 설과 추석 명절 연휴는 4일이지만 올 설이 일요일과 겹쳐 하루를 더 쉰다. 기아차는 상여금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며 귀향비 85만원, 선물비 25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모두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쉰다. 워크아웃 중이라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공장을 멈춘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이지만 연봉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지급은 없다.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은 평균 3.3일의 연휴를 보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조사한 120여 곳의 업체 가운데 71.4%는 법정휴일기간인 9~11일의 사흘 휴무를 갖는다. 4일 이상 휴무는 24.4%이며 2.5%는 1~2일만 쉰다.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제조업체들의 평균 연휴도 3.3일이다. 목포상공회의소가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휴가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기업 가운데 3일 휴무가 80%로 가장 많았다. 4일 휴무 13%, 5일 휴무 4%, 6일 이상 3% 순이다.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쳐 지난해 설(3.6일)보다 다소 줄었다. 조사대상 기업(미정업체 제외)의 52%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동부지역 업체들도 3~4일의 연휴를 보낸다. 독일계 바스프 여수공장은 9~11일 사흘 간 공장을 멈추고,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법정휴일을 쉬기로 했지만 공장 측에서 권장휴가를 내 일부는 하루 더 쉰다. LG화학 여수공장도 사흘 연휴를 갖는다. 설 상여금은 대부분 연봉에 포함돼 없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업 설비투자 위축 심상찮다

올 1.4% 줄어 3년 연속 감소…제조업 빨간불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은 제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다시 인식하고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4% 감소한 127조9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전국 3천251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작년 설비투자는 129조7000억원 수준으로 2011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까지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3년 연속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마저 올해 설비투자가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두드러졌다. 올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5.2% 감소가 예상돼 3.6% 증가가 전망되는 비제조업과 엇갈렸다.

제조업은 대기업(-3.7%), 중견기업(-6.8%), 중소기업(-19.4%) 모두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집계에서도 작년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연간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9.8%) 이후 처음이다.

월별로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1970년부터 작년까지 주요 산업별 평균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10.60%로 나타난다. 제조업은 서비스업(6.83%), 건설업(5.87%), 농림어업(2.10%)보다 월등히 높아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조업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60억 달러

광주 올 수출 목표 광주상의 다짐 대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올해 수출목표 160억 달러 달성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일 오후 3시부터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인과 근로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본 행사인 기념식과 식후행사로 광주소재 기업들이 후원한 경품을 추첨·전달하는 순서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지난해 수출성과와 올해 광주시의 수출기업지원시책 소개, 수출 진흥 유공자 표창, 강운태 광주시장 대회사,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의 축하 메시지와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올해 수출 160억 달러 달성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3년(2010~2012년)연속 최대 수출실적 달성(115억, 133억, 141억 달러)해왔다.

시민과 근로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5일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시청 대회의실로 오면 된다. 문의(062-350-5863).

/임동률기자 exian@

금호타이어 노사 공동 캠페인 3일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과 이광균 노동조합 대표지회장 등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금호타이어'라고 적힌 어깨띠를 매고 광주시민들에게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전남 건설협회 복지시설 성금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김영구)는 지난 30일과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장성 은혜의 집, 축복의 집(노인시설), 해남등대원(아동시설) 등 4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6월 김 회장이 취임한 뒤 소속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1월 판매 실적 전년비 23% 급증

국내 3만, 해외 22만대

기아자동차의 지난 1월 판매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23.4%나 증가했다.

기아차는 3일 지난 1월 국내 3만6250대, 해외 22만4322대 등 총 26만57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선수요 발생 탓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국내판매는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준중형 K3와 준대형 K7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1월에 비해 6.0%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22.1%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K3가 4005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모았다. 모닝, K5, 스포티지R이 각각 7722대, 4108대, 2778대 팔리며 국내 판매를 견인했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선보인 K7은 지난달 2697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1227대) 대비 119.8% 증가했다.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는 해외 판매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1% 증가했다. 해외 전략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해외공장 판매는 30.9% 늘어났다. 전체 해외판매는 26.8% 신장했다.

기아차는 원화 강세 등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를 기업 체질 개선·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건축허가면적 전년비 1.8%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1~2인용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총 1억4036만1000㎡로 2011년보다 1.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동(棟)수 기준으로는 23만1952동으로 2.2%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4.2% 증가한 5952만7000㎡로 전체 허가면적의 41.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면적은 16.2% 감소한 것에 비해 아파트는 8.7%, 연립주택 43.7%, 다세대주택은 5.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중소 제조업 인력난 갈수록 심화

작년 부족률 3.03% 전년보다 0.02%P 늘어

작년 중소 제조업의 전체 인력 부족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소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3.03%(6만6331명)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6만4738명)보다 0.02%포인트(1593명) 증가한 수치다.

직종별로 기술직(4.76%)과 연구직(4.40%)의 인력 부족률이 높았으며 사무 관리직(1.49%)과 서비스 종사자(1.33%)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용 물질·의약품(0.87%), 가구(1.53%), 가죽·가방·신발(1.57%)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모별로는 소기업(4.01%)이 중기업(1.14%)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소기업의 경우 5~9인(6.07%), 10~19인(3.34%), 20~49인(3.00%) 순이었으며 50인 이상 중기업의 경우도 50~99인(1.34%), 100~199인(1.14%), 200~299인(0.75%)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이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았다.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운 점으로 취업 지원자가 아예 없음(52.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3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5	9	21	27	35	4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21,519,750	9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4,339,992	42
3	5개 숫자 일치	1,410,557	1,618
4	4개 숫자 일치	50,000	78,757
5	3개 숫자 일치	5,000	1,317,489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

1월 지수 전달보다 하락

작년 말 '반짝' 호전됐던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나빠졌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5.4로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1월 건설업체들의 경기체감도가 악화한 것은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이 급감한데다가 겨울철 한파로 민간공사 물량도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7.2포인트 떨어진 85.7로 다시 90선 아래로 내려갔다. 중소업체 지수도 40.0으로 6.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66.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지방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모두 악화했다.

/연합뉴스